

제인니범 한국신발협회가 벌써 10회의 행사를 치렀다. 한결같이 달려온 코파의 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한국 신발산업의 새로운 10년을 기대한다.



MONTHLY KOFA

코파의

힘

Tel. 021-5579728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Ruko Pinangsia Blok B-28, Karawaci Office Park

Vol. **51** 2018/12





KOFA 힘찬 도약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018 재인니 범 한국 신발인의 날 행사 성료



지난 14일 재인도네시아 한국 신발협회(회장:신만기, KOFA)는 2018년 도약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 10회 재인니 범한국신발인의 날 행사를 땅그랑 소재 모든랜드 CC에서 성대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 전조영공사를 비롯해 코린도그룹 승은호회장, KOCHAM 송창근회장,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양영연회장, 민주평통 남부협회의 송광중 회장등 많은 내외빈 인사와 KOFA의 전 회원사가 함께 모여 2018년의 노고를 함께 나누고 다가오는 2019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코파를 만들기 위한 힘찬 결의를 함께 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년과 달리 초대가수 출연을 하지않고 회원사 직원의 노래 경연대회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며 우리 신발산업의 주춧돌이 되어 주는 근로자의 노래솜씨는 이날 참석한 모든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가창력으로 이날 행사의 백미였다.

이번 KOFA 가왕 선발전에는 PT,SERIM의 함상욱 팀장이 싸이의 챔피언을 불러 가왕상을 거머쥐었으며 2위로는 KMK 최진이 팀장이, 3위는 백산의 안창면 주임이 선



정되었다. 비록 가수는 아니지만 회원사 직원들의 가왕 경연대회는 연말 행사의 새로운 멋으

로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았고 우리네 신발인 가족이라는 이미지에 더욱더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지난 일 년간 매월 KOFA에서 지원하는 사회사업으로 해브스, 루마인 다 대표를 모시고 코파 회원사와 함께하며 행사 당일 특별 KOFA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적십자사를 통해 팔루 지진 구호 성금 1억 루피아를 행

사당일 성금했다. KOFA는 회원사의 권익과 정보교류 상생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사회사업과 재난의 어려움을 항상 함께 해 나가는 역할 또한 잊지않고 꾸준히 해 나가고 있었다.

올해 행사는 KOFA 창립이후 10번째 재인니 범 한국신발인의 날 행사로 KOFA는 10년간 다양하고 많은 사업들을 벌여왔다.

예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차분한 분위속에서 치러진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10년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KOFA의 10년을 한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KOFA를 만들자는 의지와 의욕이 넘치는 행사였다.

KOFA는 10년간의 잔뿌리를 이땅 인도네시아 곳곳에 뿌리내려 한국 신발인의 저력과 열정으로 다가오는 10년을 한국 신발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만들어 가동시킬 준비가 완벽히 되어있음을 확인 해 볼수 있는 자리였으며 2019년 힘찬 큰 걸음으로 성큼 내딛는 한해가 될것으로 본다.

신발산업협회, 내년 신발 수출액 두 자릿수 증가 예상



인도네시아 신발산업협회(Aprisindo)는 내년 신발 수출액이 올해에 비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부 자바 주와 서부 자바 주

에서 구두 공장의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 내년에는 수출과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전했다.

Aprisindo의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주요 신발 제조 업체인 슈타운 그룹(Shoetown Group) 서부 자바 주 마자렝카(Majalengka)에 인도네시아 법인 슈타운 리궁 인도네시아(PT Shoetown Ligung Indonesia, 이하 SLI)의 공장을 건설한다.

투자 총액은 2억 달러로 제1기 공사에는 4,200만 달러를

투입, 1,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Aprisindo측은 올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8%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공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10% 증가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올해 1~10월의 신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42억 달러였다. 10월 단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9% 증가한 4억 7,000만 달러였다.

한편, 지난해 신발 수출량은 5% 증가한 48억 7,000만 달러로 이 중 27%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2위 이하는 벨기에(8%), 일본(7%), 독일(7%) 순이었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PT. JEONGSUK TECH ABADI

Since 1996

Contractor Engineering Electrical & Supplier

“정직한 기술로 신뢰를 구축합니다”

Tel & Fax : (021) 5566 2989 Email : baeksy68@hanmail.net MB : +62 811 903 144
Jl. Sawo Raya 19B, Kel. Cibodasari, Kec. Cibodas Perumnas 1 Tangerang Banten 15138



“한반도 평화에 동남아 역할은?” ... 한-인니 전문가, 머리 맞대



인도네시아의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한국 학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방안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및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도네시아 유력 민간연구소인 하비비센터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27일 자카르타 시내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맞아’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 패널들은 최근의 남북관계 해빙무드를 소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될 경우 동남아 국가들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국민의 72%가 휴전 중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통일도 과거와 달리 실현 가능한 목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세안 국가들은 선진국의 기술·자본 지원과 개발 협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뤄낸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

다”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발전 모델을 북한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 분야 싱크탱크 ‘인도네시아 외교정책 커뮤니티’(FPCI) 대표단을 이끌고 올해 4월 북한을 방문했던 디노 파티 잘랄 전 인도네시아 외무부 차관은 “북한은 한국보다는 다른 국가,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원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남한보다 모든 면에서 자국이 우월하다는 선전을 해왔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은 북한에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히마 압둘라힘 하비비센터 민주인권연구소장은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려는 아세안의 의향을 보여줬다”면서 “개최지를 제공한 외에도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

사는 “2008년은 한반도에서 놀라운 드라마가 계속됐던 한 해였다”면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 모멘텀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참석자들 사이에선 당사국간 직접 대화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는 평화 프로세스의 성격상 동남아 등 제3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외교부 당국자와 현지 주재 각국 외교관, 언론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동부 자바 외 2개 주, 내년 지역최저임금 결정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주와 중부 자바 주, 족자카르타특별 주에서 내년도 지역최저임금(UMK)이 결정됐다. 동부 자바 주는 38개 시·군의 내년 지역최저임금(UMK)을 발표했다. 이 중 15개 시·군이 10% 이상 인상됐으며 인상폭이 최대인 지역은 빠수루안(Pasuruan)으로 월 최저임금은 257만 5,617루피아였다. 이 밖에 12개 시·군 등 많은

지역에서 노동부가 앞서 결정한 수준인 8.03%를 웃돌았으며 수라바야시의 최저 임금은 387만 1,053루피아로 결정됐다. 중부 자바 주는 지난 21일 35개 시·군의 내년 지역최저임금(UMK)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주지사 통지 ‘2018년 제560/68호’로 정했다고 현지 ‘트리뷴 뉴스’가 전했다.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스마랑시로 월 249만 8,588루피아였다. 인상폭은 대략 8% 정도였다. 한편, 족자카르타특별 주의 인상폭은 전 지역에서 노동부가 앞서 결정한 수준인 8.03%를 기록했다.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 발표 ...인니 경제계 환영 일색

인도네시아 정부가 16일 발표한 제16차 경제정책패키지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및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택스 홀리데이(일시 면세) 확대 등이 찬사를 받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의 신다 부회장(국제 관계 담당)은 “여러 서비스 관련 업종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라고 말하며 “해외 기업의 투자와 국내 진출이 확대돼 인도네시아인의 기술과 서비스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신다 부회장은 이어 “또 합작법인(JV)을 통해 국내 자본



을 강화될 수 있다”라며 “인도네시아를 수입 시장이 아닌 생산 거점으로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과 의료 등 더 많은 분야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씨니 사무국장은 “택스 홀리데이 적용 범위가 1,000억 루피아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업종에서 투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해외

투자의 증가로 경쟁력이 높아져 국내 기업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제16차 경제정책패키지는 ◇ 택스 홀리데이 조건 검토 및 법인세 감세 적용 범위 확대, ◇ 해외 직접 투자(FDI) 확대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 완화 및 외자의 주식 보유 비율 변경, ◇ 자원 수출로 발생한 이익을 국내 특정 계좌에 예치한 기업에 우대 정책 제공 등 주요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과 열정으로 다가간다!



사 출

일반사출(TPU,ABS,PC,PVC)
프레스(알루미늄, 신주, 철..)
TPR,PU,PVC

코팅

진공증착(멀티/알루미늄)
UV AUTO 코팅

금형

일반 금형
프레스 금형

스크린

인쇄
패드








PT. KEINTECH

Jl. Wisata Jangari KM 17 RT/RW 001/008 Desa Bobojong, Kecamatan Mande, Kab. Cianjur 43292 – Jawa Barat
Telp. : 0263-2294286, 0263-2294321, 0263-2294315 Fax : 0263-2294451

정부, 외국인투자 허용 확대와 조세인센티브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세금우대 대상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 16차 경제부양책을 16일 발표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 경제부양책에는 ▲외국인 투자금지 부문목록(DNI, 일명 네거티브 리스트)을 축소 ▲한시적 세금감면(Tax Holiday) 대상 확대 ▲기업이 자원 수출 수입을 국내 은행에 예치할 경우 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와 새 경제부양책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는 2년 전 개정된 대통령령(Perpres) No. 44/2016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54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전면 허용 ▲외국인 지분 한도를 상향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삭제하는 등 외국인 투자 허용 부문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은 근해 석유가스 시추, 담배 생산, 의료장비, 낙농업, 직물인쇄, 인터넷 카페 비즈니스 등 부문은 전면 개방한다.

당국은 인도네시아에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합작 형태로 국내 자본도 투자되고, 자국이 세계적인 소비시장에서 생산기지 국가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일부 분야에서 외국기업이 중소기업과 합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신규 투자자가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럼고무산업(crumb rubber industry)처럼 일부 부문은 외국기업 진출로 기존 업체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인도네시아 고무생산자협회(Gapkindo) 무나르지 수다르고 회장은 이 부문은 이미 가동률이 낮는데 외국기업까지 진출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에 고무산업 생산설비는 580만 톤이지만 고무 생산량은 363만 톤이었고, 설비가동률은 2017년에 61.73%로 2016년의 62.98%보다 하락했다.

로산 루슬라니 Kadin 회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와 Kadin이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을 위한 세무사항을 논의했고, 오는 27일 Kadin 전국지도자대회에서 다르민 장관이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르민 장관은 외국인투자 허용 부문 확대로 국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27일 발표를 통해 이런 우려가 해소되길 바랐다.

사무엘증권 소속 애널리스트 라나 술리스띠아닝시는 DNI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오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 인센티브 대상 확대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스리 몰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투자과 수출을 지지하기 위한 몇몇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가스 생산 부문에 대한 간접세와 기업의 직원 교육비와 연구개발비 관련 세금을 낮춰주는 재무부 장관령(PMK)을 준비하고 있다.

또 상위 1~5% 범위의 고급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소득세를 인하고, 고급 주택(upscale non-strata title houses) 매매 시 사치세를 부과하는 한도를 200억 루피아에서 300억 루피아로 상향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에 세금우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고 건설 분야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조세전문가 유스띠누스 뿌라스또워는 세금우대 정책을 설계할 때 생산과 유통 부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속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르민 장관은 텍스홀리데이에 관한 규정 PMK No. 35/2018과 네거티브 리스트에 관한 대통령령(Perpres) No. 44/2016를 개정된 규정은 금주 안에 발표하고 내주부터 발효할 방침이다. 수출 수입 국내 예치에 관한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태일리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수마뜨라 종단 고속도로 2024년 개통 목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3일 현재 건설 중인 수마뜨라 종단 고속도로의 개통 목표 시기를 2024년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수마뜨라 북쪽의 아찌에서 남쪽의 탐뽕주 바카우헤니(총 1,880킬로미터)까지 연결된다.

현지 언론 콤포스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3일 수마뜨라 고속

도로 중 남단 구간에 해당하는 탐뽕주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바카우헤니-뜨르방기 브사르 구간(총 연장 140킬로미터)은 다음달 완공, 뜨르방기 브사르-남부 수마뜨라 팰렘방 구간은 내년 6월에 완공될 전망이다” 라고 설명했다. 바수끼 공공·국민주택 장관은 “아찌주에 건설되는 고속도로 길이 74킬로미터 중 21킬로미터의 용지 매수도 완료했다” 라며 “내년 말에는 전 구간의 약 30%에 해당하는 575킬로미터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덧붙였다.

인터넷 퍼스트 미디어, 볼트 신규 판매 등 정지... 아직 전파 면허 박탈 가능성 있어

인도네시아 대형 유료 TV 서비스업체 퍼스트 미디어(PT First Media)는 21일 자회사 인퍼르눅스(PT Internux)가 운영하는 통신 서비스 ‘볼트!(Bolt!)’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까지 퍼스트 미디어와 인퍼르눅스가 2016년부터 체납하고 있던 있는 전파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강조했지만, 아직도 이를 따르지 않아 두 회사의 전파 면허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일, 양사가 늦어도 2020년까지 체납료를 갚겠다고 호소해 면허 박탈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퍼르눅스의 디키 사장은 “아직 면허 박탈 가능성이 있다. 정보통신부의 명확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볼트 판매, 선불 충전, 후불 통신 서비스를 잠시 중단한다” 라고 말했다.

퍼스트 미디어가 체납하고 있는 전파 사용료는 3,648억 4,000만 루피아, 인퍼르눅스가 3,435억 7,000만 루피아에 달한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뉴발란스, DeMartini 시대 저물고 Preston 시대 열린다.

Rob DeMartini 회장이 퇴진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Joe Preston이 뉴발란스의 차기 회장 겸 CEO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12년 동안 뉴발란스를 이끌어온 DeMartini 회장은 이 스포츠 브랜드를 2007년 15억 달러 규모에서 2018년 42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켰다.

그 기간 동안 뉴발란스는 특수 러닝화 카테고리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세계 판매 수익을 30%에서 65%로 확대시켰다. 그 외에, 의류와 리테일, 전자 상거래에서도 한 획을 그었다.

뉴발란스는 최근 몇 해 동안 평균 연간 성장률 11%에 달성하며 업계 최대 성장률을 기록한 브랜드 중 하나가 됐

다. DeMartini 회장은 오랫동안 브랜드 자체 생산에도 열정적으로 헌신했다.

DeMartini 회장의 지휘 아래, 뉴발란스는 공격적인 소비자 마케팅을 펼친 한편 여러 건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뉴발란스는 팀워크의 가치와 무결성, 고객 만족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매우 특별한 회사”라고 DeMartini 회장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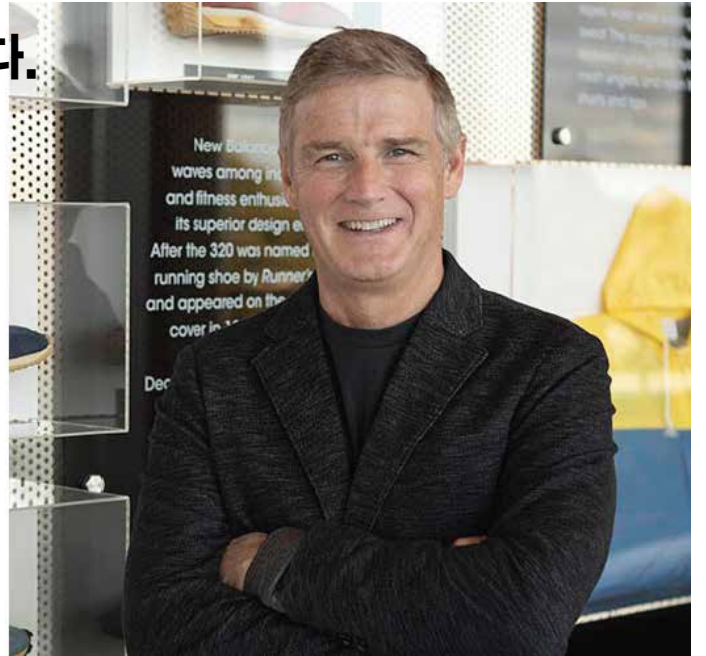
“운동화와 운동복이라는 세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환대해준 뉴발란스의 모든 식구들과 계열사, 업계 파트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현재 최고커머셜책임자로 있는 Preston은 1995년 선임 제품 관리자로써 뉴발란스에서 커리어를 시작했

다. 그는 200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회장, 2005년 부회장을 거쳐 2008년 1월 경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최근까지 뉴발란스의 글로벌 상품, R&D 및 스포츠 마케팅을 이끌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난 12년 동안 룩의 노고와 리더십에 감사드린다”고 Preston은 말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놀라운 만한 협력사와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삼아 더욱 빠른 속도와 획기적인 기술로 상징적인 브랜드의 자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Preston은 경험 많은 업계 리더로서 고객과 파트너사, 소비자들을 잘 알고 있다”고



▲ Joe Preston이 Rob DeMartini 회장 겸 CEO의 뒤를 이어 2019년 1월 1일부터 뉴발란스의 새로운 수장이 될 예정이다.

DeMartini 회장은 덧붙였다. “그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포용할 줄 아는 재능 있는 간부로서 뉴발란스를 위한 미래에 탁월한 선택이다.”

DeMartini 회장은 2007년 5월 타이슨 푸드에서 뉴발란스에 합류했다. 그 전에는 프로터 앤 캠블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버)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버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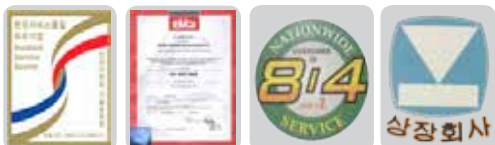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L,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KOFA 한 걸음 더 나갈 열번째



제 10 회 제인너 한국 신발인의 날 열었다!



신발산업 100년, 기로에 서다 **‘점프’ 못하는 신발 메카 부산**

덕선이가 신던 ‘타이거 운동화’ 는 어디로 갔나 ... 응답없는 신발산업

그때 1020 워너비 아이템 ‘타이거’ 고무신 만들던 삼화고무의 운동화 직원 1만명 · 수출 1,2위 다뤘지만 1980년대 후반 나이키 등 유입 1992년 폐업 ... 신발산업 쇠퇴 길

신발업계에서는 대륙고무공업사가 서울 원효로에 공장을 세운 1919년을 국내 신발산업의 태동으로 보고 있다.

고무신으로 시작된 신발산업은 1970~1980년대 주요 수출품으로 각광받았다.

부산은 6·25전쟁 이후 신발업체들이 대거 몰려 ‘신발산업의 메카’로 떠올랐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국내 브랜드가 글로벌 브랜드에 밀리며 사양산업으로 내몰렸다.

신발산업 100년이 되는 올해 신발제조업의 부활 가능성을 살펴본다. 영화 ‘1987’에서 이한열(강동원 분)과 연희(김태리 분)가 최루탄을 피해 들어간 곳은 서울 명동의 한 신발가게였다.

영화 속에서 각자 한 번씩 신발을 잃어버리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타이거 운동화’를 선물한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주인공 덕선(헤리 분)이 어머니에게 타이거 운동화를 선물받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는 장면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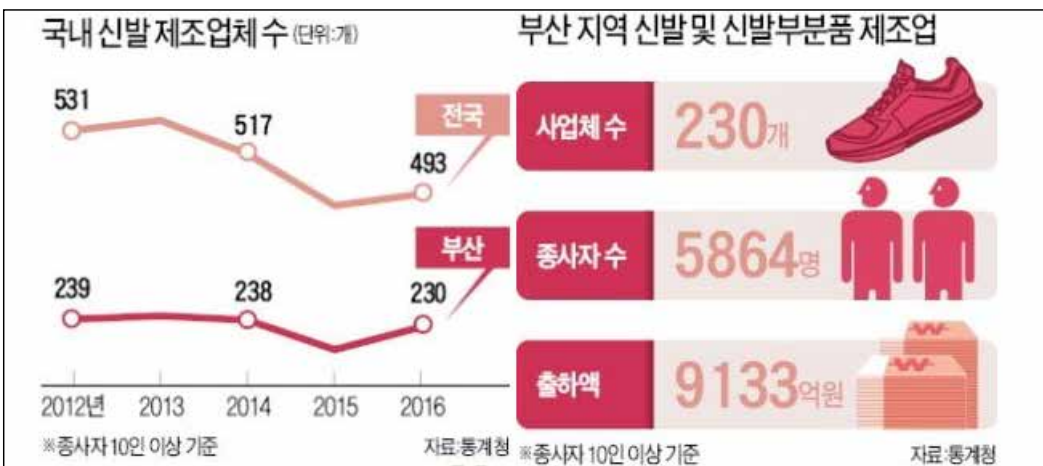
타이거는 고무신(범포)을 주로 생산하던 삼화고무가 1976년 등록한 운동화 상표다.

직원 수 1만 명에 수출 실적 1, 2위를 다투던 삼화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게다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삼화의 실적은 급격히 나빠졌다.

1992년 삼화의 폐업은 한국 신발의 전성기가 끝나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고무신으로 시작한 신발산업 100년
한국 신발산업의 역사는 100년을



세계 신발 수출 2위, 어쩌다 ... 대형 제조사, 인건비 싼 동남아행 세계시장 진출 안하고 내수 만족 신발로 돈벌어 건설 진출 등 ‘위기’ ‘88올림픽 활용 못한게 뼈 아파’

거슬러 올라간다. 1919년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설립된 대륙고무공업사가 국내 최초의 근대적 신발공장이다. 한·일 합작으로 세워진 이 공장에서 고무신이 처음 생산됐다. 이후 1920년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고무신을 만드는 공장이 속속 들어섰다. 1933년 국내 신발업체 수가 73개에 달했다. 6·25전쟁 직후인 1958년에는 삼화고무, 태화고무, 국제상사, 동양고무 등 10개 대형업체가 신발산업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신발산업의 1차 성장기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다. 1962년 동양선화가 미국에 고무신을 최초로 수출한 이후 신발산업은 주력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다. 1971년 신발 수출 5000만달러,

1975년 1억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국제상사는 1972년 세계 최대 규모의 신발 공장을 부산 사상에 지었다. 1980년대 국산 브랜드 전성시대 프로스펙스(1981년), 르까프(1986년) 등 국산 브랜드가 쏟아진 1980년대가 신발산업 2차 성장기다. 국제상사가 생산하던 ‘왕자표’ 고무신은 프로스펙스 운동화가 됐고, 동양고무의 ‘기차표’ 고무신은 르까프 운동화로 변신했다. 프로스펙스와 르까프는 지금도 남아 각각 LS네트웍스와 화승에서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 시기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도 크게 늘었다. 안광우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장은 “국내 신발 제조사들이 1970년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면서



수출량이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1986년 471개였던 부산지역 신발산업 업체 수도 1990년 1123개로 늘었다. 1988년 신발 수출액은 38억달러에 달했다. **세계 신발 수출 2위였다.** 국내 브랜드 전성시대는 199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1994년 국내 운동화 시장 점유율은 프로스펙스와 르까프가 각각 1, 2위였고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는 3위였다.

‘88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내리막길 국내 신발산업의 위기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 조짐이 있었다. 1986년 아디다스와 리복이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인건비가 오르면서 저임금에 기반한 수출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부산에 있던 대형 신발제조사들은 인건비가 싼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으로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다. 안 센터장은 “국내 브랜드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는 내수에만 만족했다”며 “신발로 돈을 번 대기업이 건설업 등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는 동안 위기가 빠르게 찾아왔

다”고 지적했다. 국내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수 있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을 활용하지 못한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각각 1972년 뮌헨올림픽과 1984년 LA올림픽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브랜드로 올라섰다.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장은 “글로벌 브랜드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Kendal / Park By The Bay

구분	토지면적	인구	1년 졸업생	GDP성장률	주요인프라
스마랑지역	39,800Km ²	3백3십만명	150,000명	6%	탄중항구, 스마랑 국제공항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구분	VSIP박닌	VSIP하이퐁	VSIP응에안	VSIP광나이	VSIP빈중
토지가격	US \$70	US \$95	US \$38	US \$38	US \$70
공단특색	삼성, LG 1시간거리내	항구도시 (북부최대항)	인력풍부 (3백3십만명)	두산중공업	외국계최다 투자지역
추천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노동집약)	섬유, 신발 중공업	전자/전자 식음료, 제약
최저임금	3급지	1급지	4급지	3급지	1급지
개발규모	150ha	1,600ha	750ha	1,120ha	2,500ha

디아도라, 차세대 러닝화 대표 브랜드를 노리다



▲ 필라델피아 DJ 겸 뮤지션인 Edward Gieda가 디아도라 의류와 신발을 착용하고 있다.

디아도라가 차세대 러닝화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

Bryan Poemer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 시절 육상선수였으며 퓨마에서 14년 동안 영업을 담당한 후 디아도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Poemer는 러닝화 특수성에 중점을 둔 “소매 중심” 전략을 사용하면 디아도라가 시장에서 주요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디아도라는 이와 동일한 비전을 가진 브랜드다. 70년이 된 이탈리아 브랜드 디아도라는 지난 10년 동안 러닝화 카테고리 넘나들면서 유통구조를 깨끗하게 만들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써 견고한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특수성 중점 전략으로 실보다 훨씬 많은 득을 이뤘다. 디아도라의 제품 세분화 전략은 MAP 정책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러닝화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 전략을 통해 수익을 공유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디아도라가 2년 전 러닝화 카테고리에 다시 등장하게 된 이후, Poemer는 성장세를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아도라는 현재 약 100가지가 넘는 러닝화 특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1년 전보다 배가 늘어난 수치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공식적으로 미토스 3를 출시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광고는 시작하지 않고 있다.

미토스 3 출시를 시장을 강타했다. 이 신발의 유통 구조는 특수했으며 특별한 마케팅 캠페인을 사용했다. 그리

고 이는 디아도라의 “페코라네라” (이탈리아어로 “검은 양”을 뜻함) 프로그램의 핵심이 됐다. 그리고 디아도라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러닝화 상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에는 대단한 브랜드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 모두 직접 판매를 시작하기 전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 그리고 그 후 소비자 직접 판매에 대한 개념에 대응해야 했다. 하지만 디아도라는 모든 소매 실적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다”고 Poemer는 말했다.

러닝 이벤트
디아도라는 러닝 이벤트를 주최하여 소매업체들에게 1년 간의 “페코라네라” 수익금을 제공했다. 이는 디아도라가 직접 웹사이트 판매를 해서 얻은 수익의 20%였으며 그것을 다시 환불해주는 것이다.

Poemer는 환불금 액수가 적었다고 시인했지만,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디아도라의 장기 계획의 중요성이었다.

회의주의자들은 디아도라가 어떤 돌파구도 없기 장기적인 성공을 도출하기 위해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디아도라의 신발은 이미 25곳의 플릿 핏(Fleet Feet) 매장에 유통됐다. Poemer는 디아도라와 유사한 가격 정책과 시장 전략을 공유하고 있는 프리미엄 러닝화 유통업체들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마존의 제3 판매업체에게 맡기지 않았다. 확고한

MAP 정책은 도전일 수 있지만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디아도라는 이 핵심 가치를 고수할 수 있는 올바른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디아도라는 시장 전략의 일환으로써 “소매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디아도라의 초기 마케팅 캠페인과 성과를 결합해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별한 HQ
1990년대 이후 디아도라의 첫 미국 본사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주제를 따랐다. 올가을 디아도라는 필라델피아 전시실을 열고 성대한 오프닝 파티를 개최했다.

전시실은 1930년대 지어진 오래된 직업전문학교 내에 위치했다. 디아도라의 전시실은 한때 과학실이었던 공간에 설치되어 비커와 버너가 든 캐비닛에 최첨단 러닝화를 전시했다.

Poemer는 디아도라가 러닝화 부문에서 돌파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회사의 경영진 대부분이 경쟁적인 러닝화 부문에서 저마다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딘 그룹으로 잘 알려진

Gelindo Bordin은 TRE 기간 동안 디아도라의 부스에 있을 예정이다. 그는 1988년 올림픽 마라톤 챔피언이자 1990년 보스턴 마라톤 챔피언이다.

Fabe Dia는 2000년 올림픽에서 4 x 200 릴레이에서 4위를 차지했으며, Salvatore Bettiol은 이탈리아를 대표해 올림픽에 두 번이나 출전

했다. “이들은 모두 육상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로서 현재는 사업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고 Poemer는 말했다. “이들 모두 디아도라가 장기간에 걸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Running Insight

금강제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강진 피해지역에 1억5천만 루피아 기부



▲ 금강제화 인도네시아 김성근 법인장(왼쪽에서 네번째)이 땅그랑 적십자사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금강제화 인도네시아 제공)

금강제화 인도네시아 (PT. KUMKANG INDONESIA 대표 김성근)는 지난 26일 강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본 술라웨시 인근 피해지역에 1억5천만 루피아를 기부했다고 30일에 밝혔다.

성금은 인도네시아 적십자사(땅그랑지점)에 전달돼 피해 복구 작업과 피해 주민 생존을 위한 구호물자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성근 법인장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피해지역 빠른 복구와, 슬픔에 가득한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담아 함께 전달합니다.”라고 전했다.

적십자 사무총장 와완 파우즈(WAWAN FAUZ)씨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강이름으로 구호물자와 기부금을 감사한 마음을 함께 담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제화는 인도네시아 땅그랑 JATAKE 지역에 설립되어, 금강의 높은 지명도, 탄탄한 기술력, 전문화된 경영 노하우를 기반, 국내로 안정적인 제품을 공급하며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금강제화의 수출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유망 | 품질 | 환경친화적 | CLEAN사업

SINCE 1968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성열 Hp : 0812 1902 2247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yler.com

PT. HANSHIN AIR COMPANY

미국 언더아머, 2019년 맞아 후버 라인 강화하다

언더아머가 2019년 2월 1일 러닝화의 후버(HOVR) 라인을 확대하면서 기능성 러닝화 브랜드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지난 10년 동안 러닝화 상품을 출시했던 언더아머가 드디어 획기적인 후버 미드솔 기술을 개발해 차세대 소매업과 소비자들에게 다가서게 됐다.

도우 케미컬(Dow Chemical)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공동 개발된 후버 기술에는 독점적인 발포고무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 화합물은 쿠션감과 탄력

전체 길이의 후버 쿠션 플랫폼, 2층 메쉬 어퍼, PU 삭라이너, 세그먼트 이중 고무 아웃솔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8mm 무게의 힐토 오프셋(29mm/21mm)도 있다. 남성화 9 사이즈의 경우 10.7oz, 여성화 7사이즈의 경우 8.7oz 무게가 나간다.

출시 에디션은 일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페이드 컬러 모티프(남성용 오렌지색/노란색, 여성용 빨강색/핑크색)가 특징이다. 하지만 4월 1일과 6월 1일 출시할 상품에는 색이 추가될 계획이

벨로시티 2(HOVR Velocity 2)가 있다. 후버 벨로시티 2는 보다 얇게 만든 후버 폼 패키지를 지면에 가깝게 느껴지는 착화감이 든다.

그 외, 오리지널 모델인 후버 소닉 2(HOVR Sonic 2)와 후버 팬텀 SE(HOVR Phantom SE)도 업데이트했다.

언더아머의 모든 신발에는 브랜드 자체 운영 중인 ‘맵 마이 런(Map My Run)’ 앱과 연결되는 커넥트 칩이 있다. (본래 후버 신발은 \$10 추가 가격에 커넥트 버전을 제공했다) 커넥트 기술과 ‘맵 마이 런’ 앱은 2016년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행 가능한 광범위한 데이터(카텐스 및 보폭 포함)와 실시간 코칭 팁을 포함시켜 업데이트됐다.

그리고 언더아머는 새로운 퀄리파이어(Qualifier) 라인으로 기능성 러닝 의류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 라인에는 티셔츠와 탱크 톱, 해프 집 톱, 패커블 재킷, 러닝 브라 및 다양한 반바지 등이 포함될 것이다.

언더아머는 신상품 신발의 빅뱅 마케팅으로 유명하다. 이 방법으로 2018년 후버를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미국 내 핵심 러닝 특수 매장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과 사회 기반시설을 결합한 후버 투어(HOVR Tour)를 만들어 리테일 파트너와 현지 전문 선수들,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새로운 신발과 관련 상품을 소규모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더아머 그룹의 Topher Gaylord 총괄이사는 밝혔다.

Running Insight



성을 줄 수 있도록 섬유에 사용되고 있다. 후버 시스템은 지난 2월 소닉(Sonic) 및 팬텀(Phantom) 기능 중심 모델을 통해 처음 선을 보였으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언더아머 런의 Josh Rattet 총괄 매니저는 말했다.

후버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신발은 후버 인피니트(\$120)로써 브룩스 고스트나 아식스 님부스 및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는 유명한 신발들에 맞설 수 있도록 디자인한 중립 쿠션 장착 모델이다.

이 신발은 경량의 플랫폼에

다. “우리는 언더아머 러닝의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도약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고 Rattet 총괄 매니저는 밝혔다. “구조와 소재에서부터 쿠션감과 반응성까지, 당사는 세계 수준의 쿠션 신발을 출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언더아머의 후버 시리즈에는 이중 밀도의 내측 지지대와 강화 어퍼가 장착된 후버 가디언 스태빌리티 모델(HOVR Guardian stability model)과 경량의 기능성 신발인 후버

미국 노스페이스, 트레일 러닝 라인 확대하다

노스페이스가 신발과 의류의 트레일 러닝 라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새로운 신발과 2019년 봄 시즌을 위한 첫 러닝 베스트를 출시해 트레일 러닝 시장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시작했다.

별 이노베이션 센터가 생체역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것이다. 노스페이스의 신상품 플라이트 트리니티 트레일 러닝화(SRP \$140)에도 아웃솔 기술을 장착해 일반 트레일 러닝화 수준을 뛰어넘었다.

노스페이스는 의류에서도 패



▲ 남성용 플라이트 트리니티(Flight Trinity)는 솔기가 없는 립스톱 섬유 어퍼와 완전히 니트 처리된 부티, 독점 기술인 ETS 아웃솔 인장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



▲ ‘앰비션(Ambition)’ 컬렉션의 신상품 앰페초는 젊고 진보적인 밀레니얼 세대를 위해 디자인했으며, 편안한 XtraFoam 미드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성용(그림)과 남성용 모두 출시됐다.

노스페이스는 세 가지 모델의 앰비션(Ambition) 컬렉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남녀 디자인을 구분한 앰페초(SRP \$130)와 코르바라(SRP \$120), 로베레토(SRP \$90) 등이 포함된다. 각 모델의 명칭은 이탈리아 알프스에서 영감을 받아 지었으며, 각 신발에는 노스페이스가 새롭게 개발한 EXTS 아웃솔 시스템을 장착했다.

EXTS는 두 개의 지속 가능한 고무 화합물로 구성된 독점 기술로써 젖은 지형뿐만 아니라 건조한 지형에서도 뛰어난 인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 외에, 특수한 돌출부 형태로 성능을 극대화했으며 이 돌출부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자연스러운 걸을 수 있도록 했다.

EXTS는 노스페이스의 글로

선과 기능을 결합한 앰비션 컬렉션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플라이트 베타 더 네이키드 트레일 베스트(Flight Better Than Naked Trail Vest) (SRP \$150)의 출시로 최초로 하이드레이션 베스트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

이 베스트는 노스페이스의 울트라 러너팀을 투입해 디자인한 것으로써, 무게감을 줄이기 위해 경량에 통기성이 좋은 패브릭을 사용했다. 그리고 베스트 앞면에는 물병용 포켓과 지퍼 포켓, 스테쉬 포켓을 장착했으며, 물병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백 포켓도 디자인했다.

트레일 러닝 신상품 유통은 러닝 관련 제품 매장을 위주로 집중할 계획이다.

kakaoVX
up VISION SCREEN GOLF™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 플라이니트를 채용한 '나이키 줌 베이퍼플라이 4%' 등장



나이키(NIKE)는 '나이키 줌 베이퍼플라이 4% 플라이니트'를 9월 5일부터 수량 한정으로 NIKE.COM에서 선형 판매하며 9월 9일부터 일반 판

매를 시작했다. 나이키의 4% 시스템을 채용한 러닝 슈즈는 엘리우드 킵초게(Eliud Kipchoge) 등 많은 육상선수들이 착용해서 화제가 되었다. 초경량으로 부드러우며 최대 85%의 에너지 리턴을 실현하는 나이키 줌 X 폼과 경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추진력을 느끼게 만드는 플랭스의 곡선적인 카본 파이버 플레이트를 활용해 시스템으로써 기능하는 것으로 나이키의 당시 가장 빠른 레이싱 슈즈와 비교해 러닝 이코노미를 평균 4% 상승시켰다. 나이키는 이 기세를 몰아 더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난 어퍼를 탑재한 나이키 줌 베이퍼플라이 4% 플라이니트를 판매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슈즈의 획기적인 특

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리를 서포트하는 경량의 플라이니트를 어퍼로 도입하고 있다. 또한 블랙에 네온을 조합한 컬러의 러닝 슈즈 '나이키 줌 플라이니트'도 10월 4일부터 NIKE.COM과 일부 점포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 슈즈는 반발성이 뛰

어난 나이키 리액트 폼에 플라이니트의 통기성이 있는 서포트와 구조 그리고 나이키 줌 베이퍼플라이 4%의 플랭스 카본 파이버 플레이트를 조합시켰다.



에너지광물자원부, 태양광 발전에 관한 새로운 규정 공포... 태양 전지 패널 설치 등의 내용 포함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에 관한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49호'를 최근 공포했다. 가정용을 포함한 태양 전지 패널 설치, 국영 전력 PLN에 매전하는 경우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제49호'는 기업과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태양 전지 패널에 대한 전력망이 온 그리드 발전일 경우 PLN에 고객 번호, 태양 전지 패널의 규격 등의 사항을 신청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PLN은 신

청 후 15일 이내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또 태양 전지 패널의 설치 장소가 지붕이나 옥상 외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정했다. 또, 국영 전력 시험기관에서 패널 설치 장소 등에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한편, PLN에 매전하지 않는 오프 그리드 발전은 따로 회사의 허가나 설치 장소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 에너지국에 태양전지패널에 대한 발전 용량을 보고 및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025년까지 23%로 끌어 올릴 목표이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x 35mm
2. 25mm Trimdek
1040mm x 25mm
3. 35mm Spandek
920mm x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x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x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82mm x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화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Think the Unthinkable!’

PT.INNOMATE is the BEST “Turn Key Solution Provider”
in One Stop Interior Design Service

INDONESIA CLIENT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 POSCO INTI Indonesia / POSCO Daewoo / POSCO E&C Indonesia / POSCO Bio Inti Agrindo / POSCO P&S
POSCO History Hall Lounge(Jakarta) / STX Corporation / GS Global / KEPCO E&C / Hyatt Hotel Jakarta / Lock&Lock Indonesia / COSMAX Indonesia / LS IS
Jakarta International Korean School / ACS International School / Pratama Abadi Industri / Nara Summit Industri / Karya Timur Makmur



innomate

The Energy Building 32nd Floor, Kav. 52-53, Jl. Jend Sudirman, RT 5/ RW 3, Senayan, DKI Jakarta, 12190
Telephone: 021. 7919. 2006 / Mobile: 0812. 1011. 1000 / Fax: 021. 7919. 2062 / E-mail: pt.innomate@gmail.com